

唐代 以前の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¹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¹ *

History of Symptom Discrimination based on Theory of Triple Energizers(三焦) before Tang Dynasty(唐代)

Jo Hak-jun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 intended to find ou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symptom discrimination based on theory of triple energizers before Tang Dynasty(唐代).

Methods : I extracted the topic-related contents from books in this era. After arraying them in a chronological order, I analyzed the materials.

Results : The author in *Zhong Zang Jing*(中藏經) first mentioned that symptom of Huo Luan(霍亂) was deeply related with triple energizers. Ge Hong(葛洪) did not only come out with some symptoms and mechanisms for Shang Han(傷寒) and Za Bing(雜病), but also applied them to their usages for herb medicine. Chao Yuan Fang(巢元方) suggested its symptoms were more closely related with Shang Han and Za Bing than before. For the first time, Chao subdivided its symptoms to both cold-heat and weakness-strength sides. Sun Sai Miao(孫思邈) supplemented its discrimination invented by Chao(巢元方), adding more symptoms and prescriptions for triple energizers. Wang Tao(王燾) showed more prescriptions for triple energizers than before, and initially designed the discrimination for Huo Luan, diabetes(消渴), and epidemic Wen Bing(溫病).

Conclusions : Before Tang dynasty, the symptom discrimination based on theory of triple energizers had been originated and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pairing Za Bing, not just treating Wen Bing.

Key Words : triple energizers(三焦), Tang Dynasty(唐代), history, symptom discrimination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202,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649-1347. E-mail : palm01@hanmail.net.

I. 序 論

溫病에 응용되는 三焦辨證은 吳鞠通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그 이전에 三焦理論을 溫病 이외의 다른 疾病에 응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¹⁾²⁾는 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三焦辨證은 吳鞠通이 葉天士의 뜻을 이어받아 溫病에 적용한 이후 주로 溫病 治療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³⁾⁴⁾.

葉天士, 吳鞠通 이전에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은 본래 寒病, 熱病 등 雜病의 辨證施治에 널리 응용되었음을 『東醫實鑑』, 『醫學入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의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三焦辨證(狹義)의 源流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은⁵⁾이 『傷寒溫病學史略』에서 傷寒學과 溫病學의 역사를 대략 기술한 것과 필자⁶⁾가 「三焦辨證源流考」⁷⁾와 「三焦辨證源流淺析」⁸⁾을 國譯하고 比較分析한 것이 있으며, 崔 등⁹⁾이 溫病學 辨證論治 중 일부분으로서 다루었고, 朴 등¹⁰⁾이 三焦辨證의 부족과 한계를 지적하고, 丁¹¹⁾이 『溫病條辨』의 성립과정을 다루고, 金 등¹²⁾이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을 다루었

다. 이런 연구들은 대체로 溫病을 위주로 진행된 것이다.

중국에서 행해진 연구는 「三焦辨證源流考」와 「三焦辨證源流淺析」이 대표적인데, 그 연구 역시 「三焦辨證은 곧 溫病에 대한 辨證」이라는 관점으로 수행된 것이다.

溫病에 활용된 三焦辨證이 끊임없이 발달되었다고 전제할 때,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시대와 내용을 발견하였다. 즉 魏晉南北朝, 明代와 清代 일부가 빠져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충이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빠진 시대의 성과를 보충하는 동시에,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廣義의 三焦辨證)」이 溫病의 三焦辨證(狹義의 三焦辨證)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나름의 의의가 뚜렷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에 대해 發生期부터 唐代 이전까지의 醫書를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 溫病 이외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三焦辨證에 대해 「溫病에 사용되는 三焦辨證」과 구분하기 위해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溫病의 三焦辨證은 「狹義의 三焦辨證」이라고 칭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이 辨證은 「廣義의 三焦辨證」이라고 칭하여 兩者를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은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廣義의 三焦辨證)」이며, 그 속에는 溫病 이외의 다른 여러 질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연구 범위는 三焦辨證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첫 단계로서 春秋時代부터 唐代까지로 삼았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연구 성과를 시대 순으로 간단히 기술 하되, 그 중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기존 성과를 다시 검토하였다.

Received(17 April 2015), Revised(07 May 2015),
Accepted(13 May 2015).

- 1) 朱云, 史恒军.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30(3). 2007. pp.8-10.
- 2) 劉寒宇, 杜松, 李鈺蛟, 張華敏.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7). 2014. pp.872-875.
- 3) 丁彰炫.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6(1). 75-89. 2003. pp.75-89.
- 4) 金尙鉉, 白裕相, 丁彰炫, 張祐彰.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2). 2011. pp.81-100.
- 5) 은석민.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출판사. 2007.
- 6) 趙學俊. 三焦辨證의 發達史에 대한 研究 2편의 國譯 및 比較. 세명대학교한의학연구소. 17. 2015.
- 7) 朱云, 史恒军.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30(3). 2007. pp.8-10.
- 8) 劉寒宇, 杜松, 李鈺蛟, 張華敏.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7). 2014. pp.872-875.
- 9) 崔三燮, 朴贊國, 洪元植.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관한 研究. 경희한의대논문집. 10. 1987. pp.415-466.
- 10) 朴炫局, 金基郁, 李泰宰, 蔣喜旭. 吳鞠通의 治學思想 및 用藥에 관한 연구. 大韓經絡診斷學會誌. 3. 2005. pp.79-103.
- 11) 丁彰炫.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6(1). 75-89. 2003. pp.75-89.
- 12) 金尙鉉, 白裕相, 丁彰炫, 張祐彰.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2). 2011. pp.81-100.

둘째, 기존연구에서 빠진 魏晉 南北朝 시대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를 위해 『中國醫學史』¹³⁾, 『韓中醫學各家學說』¹⁴⁾에서 해당 시대의 醫家和 醫書を 선정하였다.

셋째, 이를 통해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즉 基源 및 발달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그 의의를 분석하였다.

Ⅲ. 本 論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廣義의 三焦辨證)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春秋時代부터 唐代까지의 내용을 시대 순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春秋 時代부터 秦漢 時代까지

(가) 『內經』

‘三焦’라는 단어는 先秦 諸子의 書에서 그 記錄을 볼 수 없고 『韓詩外傳』의 記錄에 啣이 있고 三焦가 없으므로 三焦는 뒤에 插入되었다고¹⁵⁾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內經』에서 처음 나타난다고¹⁶⁾ 알려져 있다.

『素問靈蘭秘典論』과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¹⁷⁾이라 하여 三焦가 水濕代謝와 관련이 있다¹⁸⁾¹⁹⁾ 六腑로서의 생리 기능과 ‘三焦脈’²⁰⁾, ‘三焦病’²¹⁾, ‘三焦約’²²⁾, ‘三焦

咳’²³⁾ 등의 病症 名稱이 있지만, 구체적인 辨證이나 治療를 발견할 수는 없다.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은 『溫病條辨治法論』의 “治上焦如羽(非輕不舉), 治中焦如衡(非平不眼), 治下焦如權(非重不沈).”²⁴⁾과 문장 형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上·中·下 세 부위에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이유로 「三焦辨證源流考」²⁵⁾와 「三焦辨證源流淺析」²⁶⁾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 『內經』의 이 문장이 吳鞠通이 溫病의 三焦辨證 治法을 말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다.

朱는 『內經』의 三焦에 대해 六腑, 部位, 機能(生理) 등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²⁷⁾ 있는데, 그 중 六腑의 측면은 三焦의 形質과 관련이 깊으며, 機能의 측면(“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은 三焦의 生理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三焦 자체가 六腑의 形質이 있는 동시에 上·中·下 세 부위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 세 부위를 표현하는 단어로써 ‘上部’, ‘中部’, ‘下部’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上焦, 中焦, 下焦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 과연 실질상의 臟器인가? 개념상의 臟器인가?’ 하는 논란의 근거가 되었다.

(나) 『難經』

秦代의 醫書로 추정되는 『難經』「六十六難」과 「三十一難」에서 三焦는 水穀이 運行하는 水道²⁸⁾일 뿐만 아니라 原氣가 運行하는 통로²⁹⁾라는 기능을 언급하여 『內經』에서 언급한 水濕代謝의 기능을 보충

1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中國醫學史. 대전. 출판사 미상. 1997.

14)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1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中國醫學史. 대전. 출판사 미상. 1997. p.134.

16) 朱云, 史恒军.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30(3). 2007. pp.8-10.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0.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4.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0.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8.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9.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2.

24)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106.

25) 朱云, 史恒军.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30(3). 2007. pp.8-10.

26) 刘寒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7). 2014. pp.872-875.

27) 朱云, 史恒军.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30(3). 2007. pp.8-10.

28)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559.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29)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67.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

하였고, 「三十八難」에서 三焦는 形質이 없다고³⁰⁾ 지적하였다.

三焦가 ‘原氣와 관련이 있다.’는 學說은 후세에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 반면에, ‘이름은 있으나 형체는 없다.’는 學說은 三焦의 形質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도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三焦 形質의 유무는 三焦의 세 가지 측면 중 六腑, 部位 특성의 모순과 관련이 있다. 즉 ‘三焦’는 六腑인 동시에 上·中·下 세 부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六腑, 部位, 機能(生理)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닌 『內經』과 『難經』의 三焦 學說은 둘 다 歷代의 많은 醫書에서 인용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難經』의 學說 중 ‘原氣가 運行하는 통로’는 正說로 인정하는 데 反論이 없지만, 유독 ‘三焦는 형체가 없다’는 언급에 대해 正說이 아니라는 주장은 三焦의 ‘部位’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內經』과 『難經』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難經』은 機能과 無形(部位)에 치중한 데 반해, 『內經』은 三焦는 水液이 運行하는 道路라는 機能을 중시하고 그 形質(六腑)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難經』에서 三焦와 관련한 病症, 辨證, 治療 등은 발견할 수 없다.

(다) 『中藏經』

秦代의 醫書로 추정되는 『中藏經』에서 三焦에 대해 “人之三元之氣”³¹⁾라고 하여 『難經』처럼 元氣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고, “上則曰三管, 中則名霍亂, 下曰走哺”³²⁾라고 하여 三焦의 形質은 ‘三管’이며, 관련 病症이 霍亂, 走哺임을 밝혔다. 이 언급은 霍亂의 증후를 설명할 때 隋代 巢元方의 『諸病源候論』³³⁾을 비롯하여 여러 醫書에서 인용되었다.

30)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631. “主持諸氣, 有名而無形.”

31) 華陀. 華陀中藏經. 북경. 自由出版社. 발행연도 미상. p.27.

32) 華陀. 華陀中藏經. 북경. 自由出版社. 발행연도 미상. p.27.

33)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12. “霍亂有三名. 一名胃反,

이처럼 『中藏經』에 이르러 霍亂(雜病에 해당)이 三焦와 관련한 病症임을 처음 밝혔다.

(라) 張仲景

東漢 時代 張仲景의 『傷寒論』, 『金匱要略』에 대해 「三焦辨證源流淺析」에서 “三焦理論을 辨證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後世의 三焦辨證論治의 理論體系를 형성하는 데 지침이 되었다.”³⁴⁾고 평가하고 「三焦辨證源流考」에서도 “최초로 三焦理論을 사용하여 外感熱病의 辨證論治에 잘 응용하였다.”³⁵⁾고 평가하였다.

그 평가 근거가 될 만한 것을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찾아보면, 三焦理論으로 病證을 해석한 것³⁶⁾³⁷⁾³⁸⁾, 上·中·下 三焦에 따라 서로 다른 診斷³⁹⁾, 三焦病症을 치료하는 處方(吳茱萸湯)⁴⁰⁾, “上焦得通”⁴¹⁾ “理中者, 理中焦. 此利在下焦.”⁴²⁾의 治法 등

言其胃氣虛逆, 反吐飲食也. 二名霍亂, 言其病揮霍之間, 便致撩亂也. 三名走哺, 言其哺食變逆者也.”

34) 朱云, 史恒军.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30(3). 2007. pp.8-10.

35) 刘寒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7). 2014. pp.872-875.

36) 張仲景 著. 成無己 註. 傷寒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84. “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鞏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辨太陽病脈證并治中第六』)

37)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1. “熱在上焦者, 因咳爲肺痿. 熱在中焦者, 則爲堅. 熱在下焦者, 則尿血, 亦令淋秘不通.”(『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第十一』)

38)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1. “問曰 三焦竭部, 上焦竭善噎, 何謂也? 師曰 上焦受中焦氣, 未和, 不能消穀, 故能噎耳. 下焦竭, 即遺溺失便, 其氣不和, 不能自禁制, 不須治, 久則愈.”(『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第十一』)

39)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50. “吸而微數, 其病在中焦, 實也, 當下之即愈, 虛者不治. 在上焦者, 其咳促; 在下焦者, 其咳遠. 此皆難治. 呼吸動搖振振者, 不治.”(『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

40) 張仲景 著. 成無己 註. 傷寒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42. “食穀欲嘔,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 得湯反劇者, 屬上焦也.”(『辨陽明病脈證并治第八』)

41) 張仲景 著. 成無己 註. 傷寒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38. “陽明病, 腦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苔者, 可與小柴胡湯. 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身濈然汗出而解.”(『辨陽明病脈證并治第八』)

42) 張仲景 著. 成無己 註. 傷寒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

이 있다.

이처럼 張仲景은 三焦와 관련하여 陽明病의 脇下硬滿, 肺痿, 尿血(淋), 善噫 등(傷寒, 雜病에 해당)에 대한 病機, 診斷, 治法, 處方 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三焦辨證源流淺析」, 「三焦辨證源流考」 등의 기존 평가에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魏晉 南北朝 시대

「三焦辨證源流淺析」에는 魏晉 南北朝 및 隋唐 시대에 대해 모두 언급이 없고, 「三焦辨證源流考」에는 隋唐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魏晉 南北朝 시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그 시대의 성과를 보충하여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발달과정을하고자 한다.

이 시대에 三焦理論에 대한 발전성과를 이룬 醫家와 著書로는 『中國醫學史』⁴³⁾, 『韓中醫學各家學說』⁴⁴⁾에 따라 晉代 王叔和의 『脈經』, 皇甫謐의 『甲乙經』, 葛洪의 『肘後備急方』, 南朝代 陶弘景의 『名醫別錄』 등을 선정하였다.

(가) 王叔和

西晉 시대 王叔和는 『脈經』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第七」에서 右尺에서 腎, 膀胱과 함께 三焦를 診脈한다고⁴⁵⁾ 하였다.

또 「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에서 腎膀胱俱虛의 症候를 설명하면서 “以左腎合膀胱, 右腎合三焦”⁴⁶⁾라고 하여 右腎이 三焦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張仲景論脈第一」에서 “審察表裏, 三焦別分, 知邪所舍, 消息診看, 料度腑臟, 獨見若神.”⁴⁷⁾이라 하였는

데, 이 문장에서 ‘三焦別分’이라는 말을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三焦’라는 용어를 上·中·下 세 部位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焦手少陽經病證第十一」에서 『靈樞』의 三焦病, 三焦脈의 證候를 인용하였고⁴⁸⁾, 「病可水證第十五」에서 寸口脈이 數滑하면 胃實로 인해 三焦가 閉塞된다고⁴⁹⁾ 하였고, 「平肺痿肺癰咳逆上氣淡飲脈證第十五」에서 寸口脈이 不出하거늘 도리어 發汗하여 생기는 壞症으로 三焦가 氣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⁵⁰⁾ 하였다.

결론적으로 王叔和는 三焦의 診脈 原則에 대한 초보적인 발명이 있으며, ‘三焦’ 용어를 ‘部位’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三焦의 機能 측면에서 病機를 해석하였다.

(나) 皇甫謐

西晉 시대 皇甫謐은 『甲乙經』 「五臟六腑陰陽表裏第三」⁵¹⁾, 「十二經水第七」⁵²⁾, 「營氣第十」⁵³⁾, 「營衛三焦第十一」⁵⁴⁾, 「津液五別第十三」⁵⁵⁾, 「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⁵⁶⁾, 「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下)」⁵⁷⁾, 「五味所宜五臟生病大論第九」⁵⁸⁾, 「五臟六腑脈第三」⁵⁹⁾, 「邪在肺五

48)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1992. pp.338-339.

49)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1992. pp.453-454. “寸口脈洪而大, 數而滑, …… 滑數則胃氣實, …… 胃實則堅難, 大便則乾燥, 三焦閉塞, 津液不通, ……”

50)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1992. p.567. “寸口脈不出, 而反發汗, 陽脈早索, 陰脈不澁, 三焦踰躄, 入而不出, ……”

51)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37-39.

52)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48-52.

53)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58.

54)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59-61.

55)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63-64.

56)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80-93.

57)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93-105.

58)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306-313.

文化社. 1992. p.206. (「辨太陽病脈證并治下第七」)

4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中國醫學史. 대전. 출판사 미상. 1997.

44)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45)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1992. p.19. “腎部在右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府, 合於下焦, 在關元右, 左屬腎, 右爲子戶, 名曰三焦.”

46)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1992. p.67.

47)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1992. p.221.

臟六腑受病發咳逆上氣第三」⁶⁰，「三焦膀胱受病發少腹腫不得小便第九」⁶¹，「三焦約內閉發不得大小便第十」⁶² 등에서 三焦와 관련한 機能, 病症, 經脈 등에 대해 『靈樞』, 『素問』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로써 皇甫謐은 三焦理論 또는 辨證治療 등에 대해 독창적인 발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㉔) 葛洪

東晉 時代 葛洪은 『肘後備急方』「治傷寒時氣溫病方第十三」에서 三焦에 瘡腫이 있다고⁶³ 하였는데, ‘瘡腫’이 나타난 곳이 ‘三焦’라고 한 표현으로 볼 때 아마도 그는 三焦에 形質이 있다고 여겼다고 볼 수 있다.

「治卒大腹水病方第二十五」에서 三焦가 병들면 小便不利 등 水病이 발생하는⁶⁴ 病理, 즉 水濕代謝와 의 연관성을 언급하였고, 「治胸膈上痰諸方第二十八」에서 三焦가 不順하면 胸膈이 壅塞하는⁶⁵ 病理, 즉 氣의 升降과 연관이 있음을 發明하였다.

요약하면, 葛洪은 三焦에 形質이 있다고 여겼으며 그와 관련하여 하나의 傷寒病(瘡腫)에 대한 症狀과 두 개의 雜病症(水病, 胸膈壅塞)에 대한 病理를 發明하였다. 이는 『內經』의 三焦病症, 즉 三焦脹,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 외에 별도로 水濕代謝, 氣機升降과 관련된 雜病, 傷寒 등의 病症, 病機로 확장한

기록이다.

(㉕) 陶弘景

南朝 時代 陶弘景은 『名醫別錄』에서 石膏가 三焦의 大熱을 치료한다고⁶⁶ 하였는데, 石膏 외에 다른 藥材에 대해서는 三焦와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로써 陶弘景은 三焦 관련 病症의 用藥으로 石膏를 처음 예로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隋唐 시대

「三焦辨證源流考」에서 隋唐 時代に 三焦辨證의 발전에 기여한 醫家로 巢元方, 孫思邈, 王燾 등을 언급하였지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에, 그 醫書를 통해 기존 평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㉖) 巢元方

隋代 巢元方은 『諸病源候論』「風入腹拘急切痛候」에서 風冷이 三焦에 침입하면 心腹拘急切痛이 발생한다고⁶⁷ 하였다.

「虛勞三焦不調候」에서 上·中·下 三焦 자체의 病證이 寒·熱에 따라 病症이 서로 다름을 發明하였는데⁶⁸, 이것이 三焦病症의 寒·熱 구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⁶⁹ 평가하고 있다.

또한 「三焦病候」에서 三焦의 實證에 脹, 小便澁, 大便難이 나타나고, 虛證에 遺尿, 泄利, 胸滿, 食不消 등이 나타난다고⁷⁰ 하였다. 이것이 三焦病症의

59)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403-406.

60)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420-429.

61)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448-450.

62)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450-451.

63)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9. “又療傷寒已八九日至十餘日, 大煩渴, 熱勝而三焦有瘡腫者多下, 或張口吐舌, 呵呀目爛, 口鼻生瘡, 吟語不識人, 除熱毒止痢方.”

64)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8. “水病之初, 先目上腫起如老蠶, 色依頭脈動. 股裏冷, 脛中滿, 按之沒指. 腹內轉側有節聲, 此其候也, 不即治須臾, 身體稍腫, 肚盡脹, 按之隨手起, 則病已成, 猶可爲治, 此皆從虛損大病, 或下痢後, 婦人產後, 飲水不即消, 三焦受病, 小便不利, 乃相結漸漸生聚, 遂流諸經絡故也, 治之方.”

65)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6. “王氏『博濟』, 治三焦氣不順, 胸膈壅塞, 頭昏目眩, 涕唾痰涎, 精神不爽.”

66)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04. “主除時氣, 頭痛,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高熱, 發汗, 止消渴, 煩逆, 腹脹, 暴氣喘息, 咽熱, 亦可作浴湯.”

67)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60. “風入腹拘急切痛者, 是體虛受風冷, 風冷客於三焦, 經於臟腑, 寒熱交爭, 故心腹拘急切痛.”

68)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76. “三焦者, 謂上中下也. 若上焦有熱, 則胸膈痞滿, 口苦咽乾. 有寒, 則吞酸而吐沫. 中焦有熱, 則身重目黃. 有寒則善眠而食不消. 下焦有熱, 則大便難. 有寒, 則小腹痛而小便數. 三焦之氣, 主焦熱水穀, 分別清濁, 若不調平, 則生諸病.”

69) 劉寒華, 杜松, 李鈺蛟, 張華敏.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7). 2014. pp.872-875.

70)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73. “三焦氣盛爲有餘, 則脹氣滿於皮膚內, 輕輕然而不牢, 或小便澁, 或大便難, 是爲三

虛實 구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⁷¹⁾ 평가하고 있다.

한편 『韓中醫學各家學說』에서 “寒熱疾病을 三焦氣血의 條目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여 辨證한 것은 실로 羅氏(羅天益)의 독특한 견해이다. 清代 葉桂가 葉桂가 “河間溫熱 須分三焦”의 學說을 창제하였는데 아마도 羅氏의 학설을 계승하고 河間으로 誤稱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 라고⁷²⁾ 하여 熱病의 辨證에 三焦로 나눈 사람은 劉河間이 아니라 羅天益임을 지적하였다.

결국 巢元方의 學說은 元代 羅天益이 더욱 발전시켜서, 寒病·熱病을 치료할 때 三焦와 氣·血로 구분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諸病源候論』에 나타난 三焦 관련 病症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虛勞骨蒸候」에서 二十三蒸 중 19번째는 三焦蒸으로 雜病에 乍寒乍熱한다고⁷³⁾ 하였다.

「壞傷寒候」에서 『脈經』처럼 寸口脈이 數滑하면 胃實로 인해 三焦가 閉塞된다고⁷⁴⁾ 하였다.

「熱病煩候」에서 傷寒의 煩症⁷⁵⁾과 「熱病大便不通候」에서 熱病 大便不通⁷⁶⁾과 「溫病咽喉痛候」에서 咽喉痛⁷⁷⁾과 「遊氣候」에서 煩滿, 虛脹⁷⁸⁾과 「熱淋候」에

서 熱淋⁷⁹⁾과 「大便難候」에서 大便難⁸⁰⁾과 「大便不通候」에서 大便不通⁸¹⁾과 「關格大小便不通候」에서 三焦約⁸²⁾과 「諸飲候」에서 飲症⁸³⁾과 「霍亂候」에서 霍亂⁸⁴⁾ 등이 三焦와 관련된 病症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三焦 관련 病症이 대량으로 확대된 것은 『內經』의 三焦病證, 즉 三焦脹,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 외에 많은 雜病症에 대해 三焦理論을 적용하여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耳病諸候」에서 三焦와 膀胱은 그 虛·實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⁸⁵⁾ 설명하였는데, 이는 巢元方의 독특한 견해이다.

결론적으로 巢元方은 三焦와 관련된 病症에 대해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많은 종류로, 즉 心腹拘急切痛, 三焦蒸, 傷寒 煩症, 大便不通, 大便難, 煩滿, 虛脹, 熱淋, 大小便不通, 飲症, 霍亂 등의 雜病까지 확

滿則氣遊於內, 不能宣散, 故其病但煩滿虛脹.”

焦之實也, 則宜瀉之. 三焦之氣不足, 則寒氣客之, 病遺尿, 或泄利, 或胸滿, 或食不消, 是三焦之氣虛也, 則宜補之.”

71) 刘寒牛,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證源流考.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7). 2014. pp.872-875.

72)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p.357-358.

73)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2.

74)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17.

75)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30. “此由陽勝於陰, 熱氣獨盛, 痞結於臟, 則三焦隔絕, 故身熱而煩也.”

76)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30. “有腑臟自生於熱者, 此由三焦痞隔, 脾胃不和, 蓄熱在內, 亦大便不通也.”

77)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35. “熱毒在於胸膈, 三焦隔絕, 邪客於足少陰之絡, 下部脈不通, 熱氣上攻喉咽, 故痛或生.”

78)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55. “夫五臟不調, 則三焦氣滿,

79)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3. “熱淋者, 三焦有熱, 氣搏於腎, 流入於胞而成淋也.”

80)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5. “大便難者, 由五臟不調, 陰陽偏有虛實, 謂三焦不和, 則冷熱並結故也.”

81)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665-666. “大便不通者, 由三焦五臟不和, 冷熱之氣不調, 熱氣偏入腸胃, 津液竭燥, 故令糟粕痞結, 壅塞不通也.”

82)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6. “大便不通者, 由三焦五臟不和, 冷熱之氣不調, 熱氣偏入腸胃, 津液竭燥, 故令糟粕痞結, 壅塞不通也.”

83)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01. “諸飲者, 皆由榮衛氣痞澀, 三焦不調, 而因飲水多, 停積而成痰飲.”

84)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12. “霍亂者, 由人溫涼不調, 陰陽清濁二氣, 有相干亂之時, 其亂在於腸胃之間者, 因遇飲食而變發, 則心腹絞痛. 其有先心痛者, 則先吐; 先腹痛者, 則先利; 心腹並痛者, 則吐利俱發. 挾風而實者, 身發熱, 頭痛體疼而複吐利; 虛者, 但吐利, 心腹刺痛而已. 亦有飲酒, 食肉, 腥膻, 生冷過度, 因居處不節, 或露臥濕地, 或當風取涼, 而風冷之氣歸於三焦, 傳於脾胃, 脾胃得冷則不磨, 不磨則水穀不消化, 亦令清濁二氣相干, 脾胃虛弱, 便則吐利, 水穀不消, 則心腹脹滿, 皆成霍亂.”

85)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54. “膀胱虛則三焦實也, 膀胱爲津液之府. 若三焦實, 則克消津液, 克消津液, 故膀胱虛也.”

장제시하고, 溫病의 症狀으로 咽喉痛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三焦의 寒熱 證候와 虛實 證候를 처음으로 辨別하였는데, 그의 寒熱 辨證은 羅天益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 孫思邈

唐代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 「三焦脈論第四」에서 『中藏經』처럼 “夫三焦者, 一名三關也. 上焦名三管, 反射中焦名霍亂, 下焦名走哺.”⁸⁶⁾라고 하여 三焦의 形質과 病症을 언급하였다.

또한 「三焦虛實第五」에서 三焦의 部位와 개념 및 三焦의 寒熱虛實에 따른 症狀을 처음 제시하였다⁸⁷⁾.

「肺痿第六」에서 『脈經』을 인용하여 寸口脈이 不出하기를 도리어 發汗하여 생기는 壞症으로 三焦가 機能을 하지 못한다고⁸⁸⁾ 하였다.

三焦 관련 症狀으로 「腎臟脈論第一」에서 冬三月의 黑骨溫病⁸⁹⁾과 「消渴第一」에서 消渴⁹⁰⁾과 「水腫第四」에서 水腫⁹¹⁾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三焦理論을 활용하여 溫病의 病機를 언급한 것은 孫思邈이 처음이다.

三焦의 虛實에 따른 處方으로 「三焦虛實第五」에서 澤瀉湯, 麥門冬理中湯, 黃耆理中湯, 黃連丸, 厚朴湯, 大黃瀉熱湯 등을 제시하고⁹²⁾, 三焦 病症에 대한 處方으로 竹葉湯⁹³⁾, 金牙酒⁹⁴⁾, 五柔圓⁹⁵⁾, 前胡湯⁹⁶⁾,

無比薯蕷丸⁹⁷⁾, 豬苓散⁹⁸⁾, 麝香散⁹⁹⁾, 梔子湯¹⁰⁰⁾을 수록하였다.

결론적으로 孫思邈은 巢元方에 비하여 三焦와 관련된 몇몇 雜病 및 溫病과 몇몇 處方을 별도로 추가하였고, 巢元方이 발명한 三焦病證의 寒熱虛實에 대해 구체적인 處方을 처음 제시하였다. 특히 巢元方に 이어 溫病 중 하나인 黑骨溫病의 病機에 대해 三焦理論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 王焘

唐代 王焘는 『外臺秘要』 「三焦脈病論」에서 『中藏經』, 『備急千金要方』을 인용하여¹⁰¹⁾ 三焦의 形質과 病症을 언급하였지만, 그에 대한 독창적인 발명은 없다.

「八瘕方」에서 『素女經』¹⁰²⁾을 인용하여 三焦가 婦人의 子胞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이는 三焦가 右腎과 관련되었다고 발명한 王叔和의 診斷 원칙과 맥이 닿아 있다.

「霍亂門」에서 처음으로 吐, 吐痢, 泄痢의 3가지 症狀으로써 霍亂病을 上·中·下 三焦로 變別하는 기준으로 삼고 崔氏理中丸 등의 處方을 제시하였으며¹⁰³⁾, 「消渴門」에서 “口渴多飲” “飢餓多食” “小便頻數”의 3가지 症狀으로 上·中·下 三焦로 變別하는 요점으로 삼았다¹⁰⁴⁾.

8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34. “夫三焦者, 一名三關也. 上焦名三管, 反射中焦名霍亂, 下焦名走哺.”
8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635-639.
8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9.
8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97.
9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51.
9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7.
9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635-639.
9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55.
9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79.
9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79.
9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1.
9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19.
9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74.
9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76.
10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91.
101)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9.
102)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69. “腎爲陰 …… 左爲胞門, 右爲子戶, 主定月水, 生子之道, 胞門生於子精, 精神氣所出入, 合於中黃門, 玉門四邊, 主持關元, 禁閉子精. 臍下三寸, 名曰關元, 主藏魂魄, 婦人之胞, 三焦之府, 常所從上.”
103)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7-180.
104)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天行病發汗等方」에서 天行時氣病이 上焦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溫病의 治療를 論하였는데¹⁰⁵⁾, 이는 巢元方, 孫思邈에 이어 三焦理論을 溫病 治療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三焦 관련 病症으로 「下焦虛寒方」에서 下焦虛寒¹⁰⁶⁾, 「諸噎方」에서 噎膈¹⁰⁷⁾, 「療癰方」에서 癰¹⁰⁸⁾, 「虛勞骨蒸」에서 (十九)三焦蒸¹⁰⁹⁾, 「大腹水腫方」, 「三焦決漏水病方」에서 水病¹¹⁰⁾¹¹¹⁾, 「耳鳴方」에서 耳鳴¹¹²⁾, 「熱淋方」에서 熱淋¹¹³⁾, 「大便難方」에서 大便難¹¹⁴⁾, 「大便不通方」에서 大便不通¹¹⁵⁾ 등 약간의 雜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噎膈, 三焦蒸, 水病, 耳鳴, 熱淋, 大便難, 大便不通은 『諸病源候論』을 인용한 것이다.

三焦 관련 病症에 대한 處方으로 「深師方」에서 石膏湯¹¹⁶⁾, 「虛勞食不生肌膚方三首」에서 五柔丸¹¹⁷⁾, 「因脚氣續生諸病方」에서 猪苓散¹¹⁸⁾, 「癰癤方」에서

梔子湯¹¹⁹⁾, 「雜丹疹毒腫及諸色雜瘡方」에서 近效梔子湯¹²⁰⁾, 「古今諸家丸方」에서 理中丸¹²¹⁾ 등을 제시하였는데, 역시 대부분 『諸病源候論』을 인용한 것이다.

「傷寒匾瘡方」에서 『肘後備急方』「治傷寒時氣溫病方第十三」의 除熱毒止痢方으로 龍骨湯을 제시하였는데¹²²⁾ 이는 『肘後備急方』의 내용에 해당 處方을 보충한 것이다.

요약하면 王焘는 『中藏經』, 『肘後備急方』,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素女經』 등 이전의 三焦辨證에 대한 학설을 계승·종합하였다. 특히 이전 시대의 서적에서 제시한, 三焦 관련 雜病症에 대한 구체적인 處方을 보충하였고,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에 대해 上·中·下 三焦 각각의 고유한 病症을 근거로 어느 부위의 證候인지를 辨別하는 要點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天行時氣病은 溫病의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으로 볼 때, 孫思邈에 이어 溫病의 治療에 三焦理論을 활용한 세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IV. 考 察

魏晉 南北朝 시대에 三焦辨證에 대한 성과가 약간 있다는 점과,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廣義의 三焦辨證)’에 대한 발달 흐름이 溫病의 三焦辨證과 별개로 존재하였으며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魏晉 南北朝 시대의 성과

王叔和는 三焦의 診脈 原則에 대한 발명이 있으며 ‘三焦’를 ‘부위’와 ‘기능’의 특성으로 이해하였으나, 皇甫謐은 三焦理論 또는 辨證治療 등에 대해 자신의 발명이 없었다.

2006. pp.279-296.

105)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7. “或有五六日以上, 毒氣猶在上焦者, 其人痰實故也, 所以復宜取吐也.”

106)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49.

107)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228-229.

108)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97.

109)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4.

110)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00.

111)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13.

112)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42.

113)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70.

114)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71.

115)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72.

116)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6.

117)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39.

118)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62.

119)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04.

120)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52.

121)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70.

122) 王焘. 王焘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7.

Table 1. Change of symptoms based on theory of triple energizers(三焦)

시대	著書	三焦 관련 病症
春秋~秦漢	『內經』	三焦脹/三焦病/三焦約/三焦咳
	『難經』	없음
	『中藏經』	霍亂/走哺
	『傷寒論』	吸而微數,其病在中焦/食穀欲嘔/陽明病,脇下硬滿,不大便
	『金匱要略』	而嘔,舌上白苔者
魏晉 南北朝	『脈經』	三焦病/三焦脹/寸口脈洪而大,數而滑/寸口脈不出而反發汗(壞症)
	『甲乙經』	三焦脹/三焦病/三焦約/三焦咳
	『肘後備急方』	小便不利/胸膈壅塞
隋,唐	『名醫別錄』	三焦大熱
	『諸病源候論』	三焦蒸/寸口脈洪而大,數而滑/傷寒煩症/熱病大便不通/溫病咽喉痛/煩滿,虛脹/熱淋/大便難/大便不通/三焦約/飲症/霍亂/三焦實證(脹,小便澁,大便難)/三焦虛證(遺尿,泄利,胸滿,食不消)
	『備急千金要方』	寸口脈不出,而反發汗(壞症)/黑骨溫病/消渴/水腫
	『外臺秘要』	霍亂/消渴/天行時氣病/下焦虛寒/癰/噎膈/三焦蒸/水病/耳鳴/熱淋/大便難/大便不通

葛洪은 三焦에 形質이 있다고 여겼으며 三焦와 관련하여 傷寒病(瘡蠱)과 雜病症(水病, 胸膈壅塞)에 대한 病理를 發明하였는데, 이는 『內經』의 三焦病證, 즉 三焦脹,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 외에 水濕과 관련된 雜病, 傷寒 등으로 확장한 기록이다.

陶弘景은 三焦 관련 病症을 치료하는 用藥으로 石膏를 처음으로 들어 三焦辨證에 대한 治療가 태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魏晉 南北朝 시대의 대표적 著書を 검토한 결과,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과 관련한 내용이 이전 시대에 비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즉 三焦의 診脈 原則을 제시하고, 몇몇 傷寒病, 雜病에 대한 구체적인 症狀, 病機 등을 發明하였을 뿐만 아니라 治療 用藥까지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2.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기원과 발달과정

그 기원과 발달과정은 아래와 같이 病症, 處方, 辨證의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病症 측면

본문에서 분석한 三焦 관련 病症의 시대적 변화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표 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후의 서적을 통해 계승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Table 1과 같이, 어떤 특정 病症을 三焦理論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內經』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련 病症의 종류가 증감을 거듭하였다.

三焦理論로 해석한 病症 중 몇 가지는 후대에 계승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가령 『內經』의 三焦脹,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와 『中藏經』의 霍亂, 『脈經』의 寸口脈洪而大,數而滑, 寸口脈不出而反發汗(壞症)과 『諸病源候論』의 三焦蒸, 熱淋, 煩滿, 大便難, 大便不通 등과 『備急千金要方』의 消渴 등은 후세 醫書에서도 이전 서적과 마찬가지로 三焦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지만,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여러 病症, 『諸病源候論』의 『諸病源候論』의 傷寒煩症, 溫病咽喉痛 등은 해당 서적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후대에 계승되지 않았다.

이처럼 三焦 관련 病症이 후대에 계승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의학 이론이 본래부터 계통성이 없이 단편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여러 학파(대체로 傷寒, 溫病, 河間, 丹溪, 易水, 攻邪, 溫補 등 7개 학파)로 나뉘어 발전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게다가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다룬 범위가 春秋 시대부터 隋唐 시대까지로 비교적 짧아서 그 계통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歷代 醫家들이 三焦理論을 한 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歷代 醫書에서 三焦理論이 적용된 病症이 여기 저기 흩어져서 나타나 있는데, 歷代 醫家들이 이전의 성과를 한 군데 모아놓고 서로 비교하지 않았던 것이다.

三焦理論과 관련된 病症이 후대로 계승하는 경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던 간에, 시대를 거듭함에 따라 해당 病症의 종류가 당연히 점차 늘어났다. 이는 과거에 三焦와 연관 짓지 않던 病症에 대해 후대로 내려오면서 三焦의 기능, 속성 등이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病症과 연관하여 확장·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三焦理論과 관련된 病症 종류의 증가는, 唐代 이전에는 溫病보다 雜病에 대해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즉 三焦 관련 病症 중 溫病과 관련된 것은 『諸病源候論』의 熱病 大便不通, 溫病 咽喉痛과 『備急千金要方』의 黑骨溫病과 『外臺秘要』의 天行時氣病에 불과하며, 나머지 病症은 대부분 雜病과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三焦 관련 病症의 발달은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廣義의 三焦辨證)’이 태생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三焦에 대한 辨證은 어떤 특정 病症의 발현 부위 또는 발현 原因이 三焦와 관련이 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上·中·下 부위 각각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을 분별해 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病症이 三焦와 관련이 있는가를 해석하거나 판별하는 것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三焦 관련 病症의 종류가 다양해

지는 것은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태생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분석은 아래 辨證 측면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2) 處方 측면

本文에서 분석한 三焦 관련 病症에 대한 處方の 시대적 변화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표 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후의 서적을 통해 계승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Table 2와 같이, 三焦 관련 病症에 적합한 處方を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傷寒論』이며, 『備急千金要方』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련 處方이 다소 증감이 있었다.

三焦와 관련된 病症에 대한 處方 중 몇몇은 후대에 계승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가령 『備急千金要方』의 豬苓散, 梔子湯은 『外臺秘要』에도 三焦 관련 病症의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備急千金要方』의 麥門冬理中湯, 黃耆理中湯, 黃連丸, 大黃瀉熱湯, 竹葉湯, 金牙酒, 無比薯蕷丸, 豬苓散, 麝香散 등과 『外臺秘要』의 石膏湯, 龍骨湯 등은 해당 서적에서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三焦 病症에 대한 處方の 발달은 三焦 관련 病症의 발달과 함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施治’의 태생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만약 三焦 病症을 치료할 수 있는 處方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三焦辨證이 임상적인 의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焦 관련 病症마다 그에 대한 處方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三焦 관련 病症에 대한 處方の 종류가 다양해진 사실은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이 태생,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한데, 그에 대한 분석은 바로 아래 辨證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3) 辨證 측면 및 溫病의 三焦辨證(협의)과의 상관성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病症에 대해 上·中·下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세분하여 辨別

Table 2. Change of prescriptions for symptoms in triple energizers

시대	著書	三焦 病症의 處方
春秋~秦漢	『內經』	없음
	『難經』	없음
	『中藏經』	없음
	『傷寒論』	吳茱萸湯
	『金匱要略』	
魏晉 南北朝	『脈經』	없음
	『甲乙經』	없음
	『肘後備急方』	없음
	『名醫別錄』	石膏
隋,唐	『諸病源候論』	없음
	『備急千金要方』	澤瀉湯, 麥門冬理中湯, 黃耆理中湯, 黃連丸, 厚朴湯, 大黃瀉熱湯, 竹葉湯, 金牙酒, 五柔圓, 前胡湯, 無比薯蕷丸, 豬苓散, 麝香散, 梔子湯
	『外臺秘要』	石膏湯, 五柔丸, 豬苓散, 梔子湯, 近效梔子湯, 理中丸, 龍骨湯

Table 3. Change of discrimination for certain symptom based on theory of triple energizers

시대	著書	대상 病症
春秋~秦漢	『內經』	없음
	『難經』	없음
	『中藏經』	없음
	『傷寒論』	없음
	『金匱要略』	없음
魏晉 南北朝	『脈經』	없음
	『甲乙經』	없음
	『肘後備急方』	없음
	『名醫別錄』	없음
隋,唐	『諸病源候論』	없음
	『備急千金要方』	없음
	『外臺秘要』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三焦 固有病症에 대한 證候를 辨別하는 것이다.

먼저 진자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을 시대 변화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특정 病症에 대해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 형태를 제시한 서적은 唐代의 『外臺秘要』이며, 그 대상은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이다.

그 후 宋代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女勞疸에 대해 같은 형태로 辨別하였고¹²³⁾, 『素問病機氣宜保命

Table 4. Comparison of symptoms for triple energizers in two books

		虛證	實證	寒證	熱證
隋 諸病源候論	上焦	遺尿, 泄利, 胸滿, 食不消	脹, 小便澁, 大便難	吞酢而吐沫	胸膈痞滿, 口苦咽乾
	中焦			善脹而食不消	身重目黃
	下焦			小腹痛而小便數	大便難
唐 備急千金要方	上焦	短氣不續, 語聲不出(引氣 於肺)	乾嘔, 嘔而不出, 熱少冷多, 好吐白沫清涎吞 酸(上絕於心)	精神不守, 泄下便痢, 語聲不出	漏氣, 腹滿, 不欲飲食, 或食先吐而後下, 肘擊痛
	中焦	寒證과 동일	熱證과 동일	腹中虛痛, 洞泄, 便痢, 霍亂	閉塞不通, 上下不通, 不吐不下, 腹滿膨脹喘急
	下焦	寒證과 동일	熱證과 동일	大小便洞泄不止, 津液不止, 短氣欲絕, 腹中瘀血, 喜忘, 不欲聞人語, 胸中噎塞而短氣	大小便不通, 下痢膿血, 煩悶恍惚, 氣逆不續, 嘔吐不禁, 臍下小腹絞痛不可忍, 欲痢不出

集』에서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에 대해 같은 형태로 辨證하였을 뿐만 아니라 處方까지 제시하였다(124).

그런데 이 형태의 辨證에 적용된 대상 病症은 모두 『溫病條辨』에서 언급한 溫病 症狀과 일치하고 있다(125). 그런 점에서 볼 때, 특정 病症에 대한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형태는 溫病的 三焦辨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三焦의 固有病症을 寒:熱:虛:實에 따라 변별하는 형태)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을 시대 변화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後者の 辨證 형태는 隋代 『諸病源候論』에서 三焦 자체 病症에 대한 證候를 寒:熱:虛:實로 구별하는 형태로 태생하여 唐代 『備急千金要方』에서 그 형태를 계승하는 동시에 處方을 보충하였으며, 그 이후 宋代 『聖濟總錄』(126)(127)(128)(129)(130)(131)와 元代 『衛生寶鑑』(132)(133)에서 이런 형태를 따름으로써 後者の

123)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28-129. “中焦熱鬱, 故能發黃. 下焦氣勝, 故額黑. 上焦走血隨瘀熱行, 大便澁黑.”
124)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43-144.
125)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26)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003-1004.
127)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004-1007.
128)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007-1009.
129)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009-1011.
130)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011-1014.
131)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014-1016.
132) 羅天益. 羅天益醫書集成衛生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7-59.
133) 羅天益. 羅天益醫書集成衛生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辨證 형태가 점차 완성되었다.

요약하자면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때, 전자의 辨證 형태는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 등 雜病 및 溫病으로 점차 확대되었는데, 이 病症은 雜病에 속하면서 동시에 吳鞠通이 『溫病條辨』에서 溫病 三焦辨證에 나타나는 症狀으로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後者の 辨證 형태 중에서 『諸病源候論』과 『備急千金要方』에서 언급한 三焦의 固有病症이 비록 본래 溫病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寒熱虛實의 특성 중 일부, 즉 熱의 특성만 溫病에 반영되어 溫病의 三焦辨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結 論

春秋時代부터 唐代까지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廣義의 三焦辨證)’의 沿革 중 빠져 있는 시대를 보충하고, 그 辨證이 溫病의 三焦辨證과 달리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왔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時代의 醫書를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春秋 時代부터 秦漢 時代까지 『內經』에서 처음으로 三焦脈,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 등의 病症名稱을 언급하고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기능을 설명하였지만 辨證이나 治療가 없으며, 『難經』에서도 三焦 관련 病症, 辨證, 治療는 발견할 수 없다. 『中藏經』에 이르러 비로소 霍亂이 三焦와 相關한 病症임을 처음 밝혔다. 張仲景은 三焦와 相關된 傷寒, 雜病의 몇몇 病症에 대한 病機, 診斷, 治法, 處方 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三焦理論이 辨證에 처음 적용된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2. 魏晉 南北朝 시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는데, 王叔和가 三焦의 診脈 原則을 제시하고, 葛洪이 몇몇 傷寒病, 雜病에 대한 구체적인 症狀, 病機 등을 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陶弘景이 用藥까지 확장하여 응용하였다.

3. 隋唐 시대 巢元方은 三焦 관련 病症으로서 心腹拘急切痛, 三焦蒸, 傷寒煩症 등 傷寒病, 雜病을 이전보다 더 많이 제시하고, 溫病의 咽喉痛이 三焦와 相關이 있음을 처음 언급하였고, 三焦의 寒熱 證候와 虛實 證候를 처음 辨別하였는데, 그가 寒熱로 辨別한 것에 대해 葉桂는 劉河間의 업적이라고 잘못 평가하였다. 孫思邈은 巢元方に 비해 三焦 관련 몇몇 雜病, 溫病 症狀과 處方을 추가하였다. 巢元方の 寒熱虛實 辨證에 다시 處方을 보충하였고, 특히 黑骨溫病의 病機에 三焦理論을 처음 적용하였다. 王壽는 三焦 관련 病症에 대한 구체적인 處方을 보충하였고,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에 대해 上·中·下焦의 고유 病症을 근거로 변별하는 요점을 처음 제시하였는데, 그는 특히 巢元方, 孫思邈에 이어 溫病의 治療와 辨證에 三焦理論을 활용하였다.

4. 唐代 이전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광의의 三焦辨證)’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정 病症에 대해 上·中·下 三焦로 세분한 辨別이며, 다른 하나는 三焦 固有病症에 대한 寒熱虛實의 辨別이다. 두 가지 형태가 본래 雜病과 溫病에 대한 辨別이었다가 清代에 이르러 溫病의 三焦辨證이 발명되는 기초가 되었다.

References

1. Chao Yuan Fang. Zhu Bing Yuan Hou Lun.(『Qin Ding Si Ku Quan Shu Zi Bu Yi Jia Lei 2』 Zhong). Seoul. Publisher Daeseong Munhwasa. 1995. p.560, 576, 582, 617, 630, 635, 655, 663, 665, 666, 673, 701, 712, 754. pp.665-666.
2. Chen Yan. Chen Wu Ze Yi Xue Quan Shu San Yin Ji Yi Bing Zheng Fang Lun. Beijing. Publisher Zhong Gguo Zhong Yi Yao. 2006. pp.128-129.
3.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Daejeon University. Traditional History. Daejeon. unknown publisher. 1997. p.134.

4. Eun Seok-min. Brief History of Sanghan Onbyeong. Daejeon, Publisher Jumin. 2007.
5. Ge Hong. Zhou Hou Be Ji Fang. Beijing. Publisher Ren Min Wei Sheng. 1983. p.39, 68, 76.
6. Hong Won-sik. Jeonggyo Hwangje Naegyeong So Mun. Seoul. Publisher Dongyanguihagyeonguwon. 1985. p.34, 142.
7. Hong Won-sik. Jeonggyo Hwangje Naegyeong Yeong Chu. Seoul. Publisher Dongyanguihagyeonguwon. 1985. p.39, 120, 124, 178.
8. Hua Tuo. Hua Tuo Zhong Cang Jing. Beijing. Publisher Zi You. unknown year. p.27.
9. Huang Fu Mi Zhu. Huang Long Xiang. Jiao Zhu. Huang Di Zhen Jiu Jia Yi Jing. Beijing. Publisher Zhong Guo Yi Yao Ke Ji. 1990. p.58. pp.37-39, 48-52, 59-61, 63-64, 80-93, 93-105, 306-313, 403-406, 420-429, 448-450, 450-451.
10. Liu Wan Su. Liu Wan Su Yi Xue Quan Shu-Su Wen Bing Ji Qi Yi Bao Ming Ji.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p.143-144.
11. Luo Tian Yi. Luo Tian Yi Yi Xue Quan Shu-Wei Sheng Bao Jian.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p.57-59, 60-62.
12. Sun Si Miao. Bei Ji Qian Jin Yao Fang(『Jin Yao Fang Qin Ding Si Ku Quan Shu-Zi Bu-Yi Jia Lei 3』 Zhong). Seoul. Publisher Daeseong Munhwasa. 1995. p.155, 279, 479, 549, 581, 597, 619, 634, 651, 674, 667, 676, 691. pp.634-637, 635-639.
13. Tao Hong Jing. Min Gyi Bie Lu. Beijing. Publisher Ren Min Wei Sheng. 1986. p.104.
14. Wang Shu He. Fu Zhou Shi Ren Min Yi Yuan Jiao Shi. Mai Jing Xiao Shi. Seoul. Yi Zhong She. 1992. p.19, 67, 221, 567. pp.338-339, 453-454.
15. Wang Tao. Wang Tao Yi Xue Quan Shu Wai Tai Mi Yao.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56, 87, 97, 169, 297, 324, 439, 462, 500, 513, 542, 604, 670, 671, 672, 752, 770, 869, 1749. pp.95-117, 157-180, 279-296, 228-229.
16. Wu Ju Tong. Wu Ju Tong Yi Xue Quan Shu-Wen Bing Tiao Bian.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2. p.106.
17. Yun Chang-ryeol, Kim Yong-jin. Codification for study on Nangyeong. Daejeon, Publisher Jumin. 2002. p.559, 631, 867.
18. Yun Chang-ryeol. Theories of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Daejeon, Publisher Jumin. 2006. pp.357-358.
19. Zhang Zhong Jing. Cheng Wu Ji interpret. Shang Han Lun(『Zhong Jing Quan Shu』 Zhong). Seoul. Publisher Daeseong Munhwasa. 1992. p.184, 206, 242, 238, 350, 391.
20. Zhao Ji. Sheng Ji Zong Lu. Beijing. Publisher Ren Min Wei Sheng. 1992. pp.1003-1016.
21. Jeong Chang-hyeon. Developing History and scientific feature of 『OnByeongJoByeon(溫病條辨)』.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6(1). 75-89. 2003. pp.75-89.
22. Jo Hak-jun. Translation and comparison for history of triple energizers(三焦) Symptom Discrimination. Semyung

- Oriental Medicine Institute. 17. 2015.
23. Kim Sang-hyun, Baik You-Sang, Jeong Chang-Hyun, Jang Woo-Chnag. A study on Samchobyeonjeung(三焦辨證) of 『OnByeongJoByeon(溫病條辨)』.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4(2). 2011. pp.81-100.
 24. Liu Zhai Hua, Du Song, Li Yu Jio, Zhang Hua Min. Analyse for origin of triple energizers(三焦) Symptom Discrimination.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7). 2014. pp.872-875.
 25. Park Hyeon-guk, Kim Gi-uk, Li Yu jae, Jang Hui-uk. A study on Wu Ju Tong's Idea for remedy and medicine usage. Korea Society Meridian Diagnosis. 3. 2005. pp.79-103.
 26. San Sup Choi, Chan Gook Park, Won Sik Hong. A study of epidemic in three diagnosis and treatment. Kyunghee University Oriental Journal. 10. 1987. pp.415-466.
 27. Zhu Yun, Shi Heng Jun. Brief analyse for origin of triple energizers Symptom Discrimination. Journal of Shaanx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30(3). 2007. pp.8-10.